

터널 경제의 삶

또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다. 여러분의 올해 사업 성적표는 어떠한가. 장기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힘겨운 생활을 한다. 물론 이런 와중에도 돈을 잘 버는 선수도 있다. 혹자는 작금의 경제상황을 터널에 비유한다. 언제부터 터널이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캄캄한 터널 안이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가야 터널을 벗어날지 예상조차 가늠키 어렵다. 저 터널 끝저리에 희미한 불빛은 보이다가도 또 길이 구부러지면 그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저 불빛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번째 가설은 과연 터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가상공간인가? 어쩌면 이승에서 산다는 자체가 끝이 없는 <터널의 삶>은 아닐까? 이승을 마감하고 천국가는 날이 비로소 터널을 벗어나는 날은 아닐까? 그래도 이 가설은 비교적 쉽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고해라거나 끝이 없는 터널이라면 이 조건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구속>이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사는게 끝이 없는 <터널속>이라면 저 희미한 불빛을 향해 오늘도 한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언젠가는 저 터널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터널안이 캄캄하고 그 끝을 짐작하기 어려워 두렵고 불안할 것이다. 그래서 터널 한가운데서 포기하고 주저앉은채 대책없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는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다가 터널 벽에 머리를 쳐박고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올 것이다. 차이점은 터널을 평생이라는 시간동안 지나오면서 ‘행복했는가, 불행했는가’일 것이다. 터널 안에서의 행과 불행은 누구도 만들어 줄 수 없는, 스스로가 만드는 <복>인 것이다.

두번째 가설은 터널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사람마다 지나야 하는 터널의 길이와 터널의 갯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작금의 경제 상황을 <제한적 구속>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 일시적 고난은 곧 끝난다는 것이다. 곧 밝은 세상으로 나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는 내가 선택한 고통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 즉 내가 어떻게 해 볼수도 없는 <거대한 타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터널 안에 갇혀 있든, 터널 밖으로 빠져 나오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힘센 자가 이기고, 가진자가 이기고, 준비된 자가 이긴다. 그냥 터널 밖을 빠져나왔다고 가난한자의 형편이 나아지고, 힘 약한자가 힘 강한자로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터널을 빠져나오면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가진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터널안에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걸어야 한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발짝이라도 먼저 터널 밖으로 빠져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터널 밖으로 빠져 나오는 순간, 모든 물가는 올라있고, 모든 부동산과 비즈니스 가격은 뛰어 오르기 때문이다. 먼저 터널을 빠져 나온 가진자들의 횡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의 사업실적은 여러분의 덕분에 4 년동안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불경기가 장기화 될수록 가난한자가 가게를 사고 판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통감한다. 터널속 경제논리다. 가난한 자는 가진 돈이 적으므로 터널 속에서 더더욱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험사리 결정할 수가 없다. 수많은 생각과 주변의 우려와 불안으로 망설이는 동안 가진 자들에게 빼앗겨버린다. 터널 안과 밖에서의 가격과 조건들을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터널 안에서도 계속 재산과 사업체를 불려나가는 것이다. 가난한 자도 어두운 터널 안일 때 준비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밝은 터널 밖으로 나오더라도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크게 불려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빈손으로 터널 밖에 나온들 빈손인 것은 마찬가지다. 바쁜 벌꿀은 슬픔을 모른다. 문제는 항상 두려움이다.

이어령 교수의 시에 <언제 아담은 울었을까>가 있다. 천지창조 맨 마지막날 아담은 태어난다. 그리고 첫날 밤을 맞게 된다. 하나님은 다음날 해가 뜬다는걸 알았지만 아담은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알지 못했다. 깜깜한 밤이 되자 아담은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하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밤을 꼴딱 세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둠에서 찬란한 태양이 떠올랐을 때, 아마도 아담은 목놓아 울었을 것이다. 최초의 새벽에, 최초로 만나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는 태양을 보고 울었을 것이다. 그때 종교가 생겼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 하나님의 권능을 뼈절이게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물리학에 <터널효과>가 있다. 만약 인간의 맨손으로 두꺼운 철벽을 뚫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실제로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낮은 입자 (인간의 손에 해당)가 고에너지 입자 (두꺼운 철벽)을 뚫어버리는 현상이 극히 이례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터널효과>라고 한다. 불가능한 일도 계속 두드리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방울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 바위를 깨는 이치다. 높은 장벽을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다가 일시에 터널을 뚫어 지나갈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지 않는가. 하지만 인간은 두드리지 조차 않고 주저앉은채, 터널을 벗어날 날만 기다리는 것이다. 새해에는 힘차게 쉬지말고 두드려 보시길 소망한다.